

SOPRANO
HERA
HYESANG PARK

CREDIA
RECITAL

Breathe



Jean Schlumberger by Tiffany

TIFFANY & CO.

Soprano Hera Hyesang Park Recital
<Breathe>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숨>

2024년 2월 13일 (화)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8PM Tuesday, February 13, 2024
Lotte Concert Hall

소프라노, 박혜상	Hera Hyesang Park, Soprano
국악인, 고영열	Yeong Yeol Ko, Korean Traditional Singer
아쟁, 남성훈	Seong Hun Nam, Ajaeng
지휘, 김건	Paul Ghun Kim, Conductor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오피셜 스폰서 **TIFFANY & CO** 후원



살아있는 동안, 찬란히 빛나라

Breathe



도이치 그라모폰 2집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

소프라노 박혜상 <숨>

Soprano Hera Hyesang Park Recital <Breathe>

소프라노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 지휘 김진 | 국악인 고영열 | 아쟁 남성훈



2024.2.13 TUE 8 PM | 롯데콘서트홀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그대여 결코 슬퍼하지 말아라"

- 세이킬로스의 비문 중

저의 2집 앨범[Breathe]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고독한 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나뭇잎처럼 사라져가는 사람들, 자기 의심과 삶의 허무함 등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집스럽게 나만의 답을 찾고자 시작한 여행에서부터 태어난 앨범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 함께 한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을 제작하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프리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숨'을 가까이에서 느껴보며 삶과 죽음의 순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말יי죠.

현재의 찬란한 순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신성합니다. 행복에 중독됐던 20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삶의 불가피한 기본값의 한 부분임을 이해합니다. 슬픔으로부터 달아나기보다 모든 감정을 더욱 생생하고 날카롭게 느낍니다. 찬란한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은 살아있는 자체에 대한 기쁨입니다.

**빈곤함을 아는 자가 부유함을 알고,
낮음을 아는 자가 높음을 알고,
배고픔을 아는 자가 배부름을 알고,
슬픔을 아는 자가 행복을 알고,
고요함을 아는 자가 음악을 안다.**

아등바등 쥐려고 할 때 더욱 더 내 손에서 벗어나는 나의 자아는, 이제 텅 빈 모습만으로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자아로 변했습니다. 음악가 HERA로도, '박혜상'이라는 인간으로도, 오직 저와 저의 '숨'만 들여다보면서 존재 그 자체로 게워져야 할 것들만 온전히 게워 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께 저의 음악은 배경음악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숨'을 들여다보고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귀로 기억되는 공연이 아닌, 마음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공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박혜상

프로그램 Program

하워드 1978- 호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오르프 1895-1982 독일

<카르미나 부라나> 중 제21곡 '방황하는 나의 마음'

슈트라우스 1864-1949 독일

4개의 가곡, 작품번호 27번

I. 쉬어라, 내 영혼아! II. 체칠리아 III. 은밀한 초대 IV. 내일!

폰세 1882-1948 멕시코

작은 별

몽살바헤 1912-2002 스페인

<다섯 개의 흑인노래> 중 4번
'흑인 소년을 위한 자장가'

그레베르 1885-1951 멕시코

사랑한다 말했지요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인 터 미 션

레피체 1883-1954 이탈리아

<체칠리아> 중 '고마워요, 자매님들'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우효원 1974- 대한민국

어이가리

박혜상 & 남성훈

가시리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새야새야

박혜상 & 고영열 & 남성훈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고영열 1993- 대한민국

사랑가

고영열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엘가 1857-1934 영국

탄식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베르디 1813-1901 이탈리아

<오텔로> 중 '아베마리아'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벨리니 1801-1835 이탈리아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박혜상 &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김 건)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L. Howard 1978- Australia

While You Live

C. Orff 1895-1982 Germany

'In Trutina' from <Carmina Burana>

R. Strauss 1864-1949 Germany

4 Lieder, Op. 27

I. Ruhe, meine Seele! II. Cécilie III. Heimliche Aufforderung IV. Morgen!

M. Ponce 1882-1948 Mexico

Estrellita

X. Montsalvatge 1912-2002 Spain

'Canción De Cuna Para Dormir Un Negrito'
from <Cinco Canciones Negras>

M. Grever 1885-1951 Mexico

Te Quiero, Dijiste

Hera Hyesang Park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INTERMISSION

L. Refice 1883-1954 Italy

'Grazie Sorelle' from <Cecilia>

Hera Hyesang Park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Hyowon Woo 1974- Korea

How Do I Go

Hera Hyesang Park & Seonghun Nam

Gasiri

Hera Hyesang Park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Bird Song

Hera Hyesang Park & Yeongyeol Ko & Seonghun Nam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Yeongyeol Ko 1993- Korea

Love Song

Yeongyeol Ko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E. Elgar 1857-1934 United Kingdom

Sospiri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G. Verdi 1813-1901 Italy

'Ave Maria' from <Otello>

Hera Hyesang Park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V. Bellini 1801-1835 Italy

'Casta Diva' from <Norma>

Hera Hyesang Park & DITTO Orchestra (Paul Ghun Kim)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CREDIBLE

보이스
필립 파레노

2024.2.28-7.7



Mercedes-Benz Selection



하워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L. Howard While You Live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루크 하워드는 피아노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즉흥연주를 들려주는 동시에 전자 악기까지 활용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개성적인 음악을 만드는 젊은 작곡가다. 그는 스펙트럼이 넓고 친근한 자신의 음악을 가리켜 ‘영화 없는 영화 음악’이라고 재치 있게 규정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워드의 2017년작 ‘찬가’에 ‘세이킬로스의 비문’의 가사를 덧붙여 편곡한 작품이다. 기원 1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세이킬로스의 비문은 돌기둥에 새겨진 노래로, 가사와 음악이 온전히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 작품으로 꼽힌다. 박혜상은 팬데믹 시기에 가사 첫 줄인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라는 가사에 영감을 받아 작곡을 의뢰했다고 한다. 성공회의 전통적인 교회음악에 뿌리를 둔 단순하면서도 명상적인 음악으로, 짧지만 울림이 강한 가사와도 잘 어울린다.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중 제21곡 ‘방황하는 나의 마음’

C. Orff ‘In Trutina’ from <Carmina Burana>

1937년에 초연된 <카르미나 부라나>는 카를 오르프의 대표작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12세기에서 13세기 무렵 중세 시대의 골리아드, 즉 여러 수도원과 대학을 전전하며 공부했던 방랑 성직자와 수도자, 지식인들이 쓰거나 수집한 풍자적인 시와 노래를 담은 필사본이다. 그 안에는 중세 사람들의 생생한 삶과 감정이 담겼는데, 오르프는 그중 스물네 편을 골라서 음악을 붙였다. 옛 음악 양식과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케 하는 20세기 오케스트라 어법이 기묘한 조화를 이룬 음악이 인상적이다. 짧지만 강렬한 감정을 담은 스물한 번째 노래인 ‘방황하는 나의 마음’은 사랑에 사로잡힌 여인의 마음을 묘사한다. 연약한 여인은 관능적인 사랑과 순결함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결국 ‘달콤한 멍에’를 택하고 만다.

슈트라우스 4개의 가곡, 작품번호 27번

R. Strauss 4 Lieder, Op. 27

가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894년에 출판된 네 곡은 슈트라우스가 아내 소프라노 파울리네 데 아나에게 바친 결혼선물이다. 첫 번째 곡인 ‘쉬어라, 내 영혼’은 슈트라우스 가곡 중에서도 신비롭고 모호한 작품으로 꼽히는데, 최만년인 1948년에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한 것을 보면 작곡가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노래였던 것 같다. 두 번째 곡인 ‘체칠리아’는 결혼선물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로, 풍성한 영감이 끊임 없이 흘러내리는 작은 걸작이다. 한편 세 번째 곡인 ‘은밀한 초대’는 제목과는 달리 대단히 활기차

고 자신만만한 곡이며 곳곳에 에로틱한 이미지와 술에 대한 은유가 숨어있다. 슈트라우스는 가사의 매 문장 끝부분이 네 어절로만 되어 있는 특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내 일!'은 슈트라우스 가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다. 단순하지만 절묘한 표현과 섬세한 음향이 신비로운 효과를 자아낸다.

폰세

작은 별

M. Ponce

Estrellita

마누엘 폰세는 20세기 멕시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20세기 초반 인상주의와 신고전주의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에스파냐 음악 전통은 물론 멀리 마야와 아즈텍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멕시코의 민속 음악과 대중음악의 요소까지 아우른 독특한 음악 언어로 널리 알려졌다. 1912년에 만들어진 '작은 별'은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리릭 소프라노들이 즐겨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다. 작곡가가 직접 쓴 가사에서 사랑에 빠진 여인은 하늘의 별에게 자신의 사랑을 하소연하며 상대방도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한다.

몽살바헤

<다섯 개의 흑인노래> 중 4번 '흑인 소년을 위한 자장가'

X. Montsalvatge

'Canción De Cuna Para Dormir Un Negrito'
from <Cinco Canciones Negras>

카탈루냐 작곡가 사비에르 몽살바헤는 긴 생애 동안 12음 기법부터 대중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양식을 넘나들었는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1945년작 <다섯 개의 흑인노래>는 중미 지역에 있는 앤틸리스 제도의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우루과이 시인 일데폰소 페레다 발데스의 시에 붙인 '흑인 소년을 위한 자장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노래로, 하바네라 풍의 '닝게, 닝게(Ninghe, ninghe)'같은 후렴구와 아이를 달래는 다정한 가사가 매력적이다.

그레베르

사랑한다 말했지요

M. Grever

Te Quiero, Dijiste

멕시코 출신의 마리아 그레베르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라틴 아메리카 작곡가였다. 그녀는 1920년대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유럽 클래식 음악 전통과 멕시코 음악, 재즈 음악의 영향을 하나로 엮은 작품을 쓰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레베르가 1930년에 발표한 '사랑한다 말했지요'는 그녀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로, 1944년에 뮤지컬 영화 <수영복 미녀>에 쓰이면서 유명해졌다. 대중가수는 물론 호세 카레라스 등 여러 성악가들도 즐겨 불렀다.

레피체**<체칠리아> 중 ‘고마워요, 자매님들’****L. Refice****‘Grazie Sorelle’ from <Cecilia>**

가톨릭 사제이자 작곡가였던 리치니오 레피체가 1934년에 발표한 오페라 <체칠리아>는 로마제국 시대에 순교한 ‘음악의 성녀’ 체칠리아의 전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20세기 전반의 전설적인 소프라노 클라우디아 무치오는 이 오페라의 주인공 역으로 공전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레나타 테발디나, 레나타 스코토도 즐겨 불렀다. ‘고마워요, 자매님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체칠리아가 숨을 거두며 내뱉는 마지막 고백 장면으로, 체칠리아는 하녀들의 도움을 친절하게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푸치니 풍의 아름다운 선율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우효원**어이가리, 가시리, 새야새야****Hyowon Woo****How Do I Go, Gasiri, Bird Song**

작곡가 우효원은 국립합창단 전임 작곡가를 지내는 등 합창음악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작곡가다. ‘어이가리’는 2017년에 초연된 ‘영원한 안식(Requiem Aeternam)’을 우리 고유의 상여 소리와 접목해서 편곡한 작품이다. 작곡가는 가톨릭 교회의 위령미사인 레퀴엠의 라틴어 가사를 우리 상여 소리로 바꾸고, 원곡의 첼로를 대신해서 한국 전통 악기인 아쟁을 첨가하면서 음색도 바꾸었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듯한 아쟁 소리와 더불어 독창자는 죽음을 향한 슬픔과 내세의 희망을 노래한다. 처연한 한을 담아낸 ‘가시리’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원작은 합창곡이지만 박혜상을 위해서 독창곡으로 편곡했으며, 2023년 3월에 박혜상이 초연했다. 한편 ‘새야새야’ 편곡은 3.1절 기념 창작 칸타타 <나의 나라>에 등장하는 등 우효원이 예전부터 애정을 보였던 노래로,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합창음악을 추구하는 작곡가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고영열**사랑가****Yeongyeol Ko****Love Song**

고영열은 국악 소리꾼이자 피아니스트로, 최근에는 라비던스 멤버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음악가다. 그는 직접 작사, 작곡도 하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는데, 2017년에 발표한 ‘사랑가’는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유명한 눈대목인 사랑가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새롭게 다듬은 노래다.

엘가**탄식****E. Elgar****Sospiri**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엘가는 ‘사랑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인사’와 짝을 이루는 작품을 쓰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작곡을 하면서 비록 짧지만 애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곡임을 깨달았다. 결국 엘가는 편성을 현악 앙상블과 하프 로 바꾸었고, 제목도 이탈리아어 복수형으로 바뀌서 ‘Sospiri’로 다시 정했다. 단조(d단조)에서 장조(F장조)로 이동하며 미묘하게 바뀌는 음향이 작곡가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애상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며,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랩소디 풍의 바이올린 선율은 탄식을 표현하는 듯하다. 엘가는 이 작품을 친구이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던 윌리엄 빌리 리드에게 헌정했다.

베르디 <오텔로> 중 ‘아베마리아’

G. Verdi ‘Ave Maria’ from <Otello>

1887년에 초연된 오페라 <오텔로>는 1871년의 <아이다> 이후 오페라 극장에서 은퇴했던 베르디가 오랜 침묵을 깨고 창조한 노년의 걸작이다. 젊은 시절부터 셰익스피어를 깊이 존경했던 베르디는 대본 작가 보이토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선과 악, 그리고 사랑과 질투의 비극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오페라의 세 주인공은 노래나 연기 모두 대단히 어려운 배역으로 꼽힌다. <오텔로>의 마지막 4막은 데스테모나의 침실에서 펼쳐진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데스테모나는 시녀와 함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버드나무 노래’를 부르고, 시녀를 보낸 뒤 성모상을 향해 고뇌 어린 ‘아베 마리아’를 바친다. 데스테모나의 마지막 모놀로그를 마무리하는 ‘아베 마리아’는 기도답게 E플랫음으로 조용히 읊조리듯 시작하지만 곧 아름다운 칸타빌레로 이어지며, 베르디는 곧 닥칠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듯 서정적인 음악에 강렬한 감정을 불어넣었다.

벨리니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V. Bellini ‘Casta Diva’ from <Norma>

19세기 초반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를 주도했던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는 자신들이 오랜 벨칸토 전통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청중은 오히려 이들에게서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를 찾는다. 그만큼 그 안에 담긴 ‘목소리의 아름다움’이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 명 중 가장 늦게 태어난 벨리니는 안타깝게도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짧은 순간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난 작곡가였다. 1831년 12월에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노르마>는 19세기 초반 벨칸토 오페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르마>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배역은 물론 노르마로, 이미 대본을 고르기 전부터 여주인공은 주디타 파스타의 몫이었다. 벨리니와 파스타는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노르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1막에 등장하는 ‘정결한 여신’은 오페라를 대표하는 아리아로, 콜로라투라 기교와 무대를 압도하는 힘, 벨칸토의 우아함을 모두 표현해야 하는 난곡이다.



© sangwooklee
Jewelry by Tiffany & Co.
Dress by GIVENCHY

박혜상, 소프라노

Hera Hyesang Park, Soprano

소프라노 박혜상은 다양한 음색과 놀라운 성량,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페라의 다양한 배역과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디바로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5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준우승과 최다 관객상을 수상했고, 오페탈리아 콩쿠르에서 여성부문 2위, 자르주엘라(스페니쉬 아리아) 부문 1위를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5위 입상 및 2014년, 2010년 국립 오페라단 콩쿠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혜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홀 무대에 서고 있다. 2019-2020년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에서 막을 올린 <라보엠> '무제타' 역, 영국 글라인드본에서 공연된 <세비야의 이발사> '로지나' 역으로 주요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데뷔하면서 평론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으며 2021-2022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데스피나' 역으로, 그리고 <마술피리>에서 '파미나'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 데뷔에 이어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아디나' 역으로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데뷔를 하였다.

202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팔스타프>에서 주역 '나네티'역으로 다시금 세계 정상 무대에 주역으로 오른 박혜상은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리사이틀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계 무대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인 박혜상은 2024년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체를리나'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세계적인 거장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 아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

2020년 박혜상은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아시아 소프라노로서 최초로 전속 계약을 체결, 첫번째 데뷔앨범 <I AM HERA>를 발매한 데 이어 2024년 두번째 앨범인 <Breathe : 숨>을 발매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석사과정과 전문 연주자 과정을 전액 장학금으로 마치며 우수학생으로 졸업하였다. 일찍이 돋보이는 실력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영 아티스트로 선발된 그녀는 Edith Bers를 사사했다.



고영열, 국악인

Yeong Yeol Ko,
Korean Traditional Singer

고영열은 세련된 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판소리를 친숙하게 알리고 있는 피아노치는 감성 소리꾼이다. 작사, 작곡,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그는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며 클래식, 팝, 재즈, 월드 뮤직 등의 여러 장르와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는 국악인이다.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였고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금상을 받으며 소리꾼으로서 특출난 면모를 보여주었다. 현재 JTBC <팬텀싱어 3> 준우승팀 '라비던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을 받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CREDIA



남성훈, 아쟁

Seong Hun Nam, Ajaeng

남성훈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그룹 '상자루'와 서의철 가단의 동인으로, 동시대 가장 연주활동을 많이하는 아쟁 연주자 중 하나이다. 2016년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아쟁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며 음악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그는 아쟁이라는 악기 하나로 전통과 창작을 아우를 수 있는 올라온더의 면모를 갖춘 연주자로서, '어떤 음악이든 남성훈을 거치면, 남성훈의 향을 풍기게 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국악계의 유망주이다.



김건, 지휘자

Paul Ghun Kim, Conductor

2022년 1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임명과 함께 한국에서 활동의 시작을 알린 김건은 세계적인 거장 로린 마젤에게 ‘예술가중 예술가’라는 극찬을 받은 지휘자이다. 그는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 랑랑, 바이올리니스트 시모네 랍스마와 함께해 찬사를 받았으며, 오케스트라의 역동성과 신비함을 이끌어내는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

김건은 서울에서 태어나 11 세에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였고, 15 세에 지휘자로서 데뷔하였다.

브루노 발터 국제지휘자 상을 수상하여 미국 전역에 소개된 바 있는 김건은 내셔널 심포니, 볼티모어 심포니, 내쉬빌 심포니 등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을 객원지휘하였으며, 그 외에도 폴란드의 키크체 필하모닉, 영국의 브리튼-피어스 오케스트라, 캐나다의 내셔널 아츠 센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왔다.

그는 제 8 회 Grzegorz Fitelberg 국제콩쿨에서 입상하며 지휘자로서 우수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프란츠 벨저 뢰스트, 쿠르트 마주어 등의 거장들을 사사 하였고 미국의 라비니아 페스티벌,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스위스의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제에 참여 하였다

김건은 북미 메이저 오케스트라 오레곤 심포니의 Conductor in Residence 로 활동하였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선보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전곡에 이어서 ‘전쟁과 평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 활동을 하였고, 2022년부터 강동문화재단(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장한나(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즈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 하였다.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 선보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 디슈>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소프라노 박혜상

도이치 그라모폰(DG) 두 번째 앨범

BREATHE



DG40317

삶과 죽음의 숨,
펜데믹 이후 겪은
실존적 고민의 해답을 음악에 담다

들리베의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마스네의 '아베 마리아'
한국 작곡가 우효원의 '어이 가리' 등 수록



UNIVERSAL MUSIC CLASSICS

YouTube universalmusickoreaclassics Facebook universalmusicclassickorea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쇼팽

CREDIA

DONG HYEK LIM PIANO RECITAL

임 동 혁 피 아 노 리 사 이 틀

쇼팽 발라드 전곡 |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7번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2024.2.15 THU 7:30 PM | 롯데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예매

Club BALCONY 티켓링크 interpark 티켓 롯데콘서트홀

5년만의 여제 귀환

30th
CREDIA
1994-2024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NNE-SOPHIE
MUTTER
IN RECITAL

2024.3.13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4.3.3.SUN 5PM 대전예술의전당 | 2024.3.12.TUE 7:30PM 광주예술의전당

주최

티켓

예매

CREDIA MUSIC & ARTISTS

R석 18만원 | S석 15만원 | A석 10만원 | B석 5만원

Club BALCONY 리켓링크 interpark 티켓 예술의전당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KV.301 G장조 |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D.934 C장조 | 클라라 슈만 세 개의 로망스 Op. 22 |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P.110 b단조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4

Credia Classic Club 2024

POEM

노래가 된 시



3. November If You're a Flower

28. April Widmung · 9. June O Sole Mio

27. July Melody

- I. 4월 28일 '헌정'
- II. 6월 9일 '오 솔레 미오'
- III. 7월 21일 '멜로디'
- IV. 11월 3일 '그대가 꽃이라면'

테너 존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 피아니스트 조영훈



네 번의 일요일 오후 5시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 모든 좌석 55,000원

음악평론가 유정우와 함께 하는

북유럽 클래식 뮤직 크루즈 14일

ONLY!
Club
BALCONY

북유럽의 아름다운 백야,
현대 건축 걸작 공연장에서 최정상 아티스트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도시 탐험

2024.6.15~28

- 상품가 1인 1,740만원~ (현금가/아웃사이드 캐빈 2인 1실 기준 / 항공 별도)
- 여행지 함부르크·브레머하펜(독일), 스타방에르·베르겐·오슬로(노르웨이), 예테보리(스웨덴), 코펜하겐·올보르(덴마크)
- 공연 테오도르 쿠렌치스 &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미샤 마이스키, 다니엘 호프 외
- 문의 클럽발코니 010-2098-5286 | 1577-5266 | www.clubbalcony.com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숨>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